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하면 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 년 4월 10일(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씨스퀘어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정*원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1주차: <순이 삼촌> 읽고 줄거리와 느낀 점 나누기 책 제목: 순이 삼촌 작가: 현기영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 화자는 제주도에서 전통문화 관련 취재를 위해 한 마을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조용하고 말이 없는 순이 삼촌을 만난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꺼리는 분위기인데, 이는 그녀가 4·3 사건 당시 토벌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간신히 살아남았기 때문이었다. 화자는 순이 삼촌이 겪은 일을 듣고 강한 충격과 죄책감을 느낀다. 순이 삼촌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평생 묻고 살아왔으며, 마을에서도 '부정 탄 여자'로 취급받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이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한 집단적 폭력의 결과이자, 그 후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한 역사임이 드러난다. 결국 화자는 순이 삼촌의 고통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글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다. 느낀점 제주 4.3 사건이 다른 역사적 사건들에 비해 많이 묻혀있다고 느껴졌다.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내륙과 떨어져있다고 덜 우선시된 것 아닌지 궁금하다. 제주 4.3 사건으로 아직도 후유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하지도 못 할 것이다.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순이 삼촌을 읽고 가장 먼저 든 느낌은 참혹함이었다.							

	이 책은 단순히 국가에 의해 삶이 무너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제주 4·3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벌어진 현실이었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가왔다. 순이삼촌은 그 누구보다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정치적 신념을 주장한 적도 없었고 반국가적 행동을 한 적도 없었다. 단지 그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라는 이름이 붙고, 지배계급 즉 국가의 폭력 대상이 되었다. 사실 순이삼촌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이라면 이유없이 빨갱이라고 불리며, 무차별적으로 폭력과 성폭력을 행세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존재인데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바라보며 폭력을 삼아왔다. 순이 삼촌이 국가로인하여 받은 폭력으로 얻은 정신적 고통이 다른이들이 보았을 때 단지 정신나간여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으로서 이 진실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침묵하므로써 순이삼촌은 또 다른 폭력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침묵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통해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주 4.3 사건은 교과서나 뉴스에서 제대로 접해 본 적이 없는 사태다. 순이삼촌은 그 부분을 꼬집듯 개인의 목소리를 빌려 그 사건을 복기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피해자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닌, 살아남은 사람들 죄책감, 내면의 갈등, 회복의 과정까지 섬세하게 그려낸다는 점이였다. 읽는 내내 안타깝고 괴로웠다.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또한 들었다.
--	---

2025 년 5 월 30 일

참가자대표 : 윤*희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하면 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 년 4월 17일(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씨스퀘어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정*원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2주차: 순이삼촌 관련 논제 선정 및 토론 1. 국가의 존재이유, 본질은 무엇인가? + 순이삼촌처럼 국가가 폭력의 주체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이며,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국가는 개개인을 통합하고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 사회적 관계를 맺기 편하도록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국가의 본질은 국민을 이용해 국가의 부강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순이삼촌처럼 국가가 폭력의 주체가 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우선시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 국가지도자의 의견과 다른 이들을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유없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다른 강대국에게 저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 하면서도 폭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끼리도 연대하고 폭력에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순이 삼촌에서는 국가가 보호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그 본질은 무너지게 된다. 국가의 힘이 커져서 나라를 장악할 때 폭력의 주체가 되기 쉬워진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야하고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듯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국민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순이삼촌』 속 국가는 이런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념의 이름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침묵을 강요한다. 국가가 폭력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권위주의 체							

제, 또는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국가 권력은 "빨갱이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무고한 주민을 학살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와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기억과 기록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2. 지배이데올로기는 옳은 것인가?

지배이데올로기는 옳지 않다. 하지만 사회의 단합과 질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 권력자들이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움직인다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지배이데올로기는 옳지 않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세뇌하고 잘못된 인식을 심을 가능성이 크기에 우리는 지배이데올로기를 경계하고 의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배이데올로기란 사회적 지배계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질서와 권력을 정당화하여 사람들이 비판없이 받아들여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순이 삼촌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는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따라서 비판 없는 이데올로기는 독이 될 수 있다.

지배 이데올로기란 특정 권력 집단이 사회를 통제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가치 체계를 말한다. 『순이삼촌』은 바로 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작품이다.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 속에서 절대화되었고, 그 결과 국가는 ‘국민’을 잠재적 반역자로 규정하고 학살을 정당화했다.

문제는 이데올로기 자체보다도, 그 이데올로기를 절대선처럼 여길 때 발생하는 폭력이다. 이데올로기가 다르면 적이 되고, 그 적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역사 속 수많은 국가폭력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지배 이데올로기는 결코 절대적인 ‘옳음’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비판과 검증, 다양성의 수용을 통해 견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로운 사회를 억누르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3.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가?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보면 누군가는 정치가가 이용한 역사적 사건마저 조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가 자발적으로 역사적 사건이 더 자세히 조사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만, 표나 민심을 얻기 위해 공약과도 같이 말만 한다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묻히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사건은 진실을 우선시하며 그로 인한 보호,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의미가 퇴색되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더 이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조사하고 알아가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희생자는 또 다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역사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용해선 안된다. 역사적 사건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순이삼촌』에서 드러나는 4·3 사건은 오랫동안 금기시되고 왜곡된 채 기억에서 밀려나 있었다. 이는 그 사건이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불편한 역사’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거울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사건을 강조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기억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된다. 정치가 역사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그 접근은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모색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정치적 도구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순이삼촌』이 4·3 사건을 문학으로 되살린 이유도 바로 정치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 문학이 증언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	--

2025 년 5 월 30 일

참가자대표 : 윤*희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하면 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 년 4월 24일(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씨스퀘어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정*원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3주차: <변신> 읽고 줄거리 및 느낀점 나누기 제목: 변신 작가: 프란츠 카프카 줄거리: 주인공 그레고르는 어느 날 아침 벌레로 변해 있었다. 그는 여행 판매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왔지만, 갑작스런 변신으로 인해 말도 통하지 않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다. 처음엔 가족들이 당황하고 걱정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혐오와 부담스러움을 드러낸다. 특히 아버지는 그레고르에게 적대감을 보이고, 어머니는 공포, 여동생 그레타만이 잠시나마 동정심을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레타조차 그를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다. 방에 갇힌 채 점점 쇠약해지는 그레고르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며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다. 결국 어느 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은 오히려 안도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간다. 느낀 점: 변신을 읽으며 처음 느낀 점은 '인간이 인간이 아니게 될 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때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였다. 가족과 사회가 그레고르를 인간이 아닌 벌레로 대하면서, 그레고르도 스스로를 벌레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가장 충격적이었다. 외형 말고 가장 큰 변화는 '노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레고르는 짐이 되었고, 가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사회에서 인간이 부품으로 여겨지는 현실 같다 느꼈다. 소외를 당연							

	시 여기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겠다 생각했다. 그레고르가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한 뒤 가족들로부터 점점 소외되어가는 과정이 가장 인상깊었다. 벌레가 된 후 가족은 그레고르를 짐처럼 여겼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레고르는 이제 아무런 쓸모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레고르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까웠다. 오늘날에 빗대어 생각했을때도 인간의 가치를 효율성이나 생산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 사회가 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무너지게 한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그리고 여동생이 그레고르를 이용해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지를 굳히려는 모습이 약자를 돕는 척하며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떠올리게 했다. 변신은 단순히 벌레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이 모습을 사회로 빗대어 바라보았을 때, 사회가 한 인간을 얼마나 쉽게 소외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그레고르가 가장노릇을 하며 착실히 살다가 자아를 잃어가며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벌레로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 예상했다. 또, 소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책이었다.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였던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해서 가족들과 많은 이들에게 무시를 당하다가 결국엔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사회가 말하는 정상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말하는 것 같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상에 가깝지 않은 이들의 삶이 '정상'인들의 고려 사항이 아니게 된다는 생각을 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가정의 형태였다면 변신 가족과 비슷한 양상을 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배척 받는 삶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할 수 있었다.
--	---

2025 년 5 월 30 일

참가자대표 : 윤*희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하면 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 년 5월 1 일(목요일) / 장 소 : 비대면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정*원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4주차: <변신> 논제 선정 및 토론 진행 1. 그레고르의 변신은 현실 도피인가, 사회의 폭력에 대한 은유인가? 그레고르의 변신은 사회의 폭력에 대한 은유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한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갔다. 그런데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자마자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레고르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무거운 짐처럼 여기기는 존재였다가 점차 혐오대상으로 변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가족이 그레고르를 향한 사랑이 보여지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경제적인 생산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인간은 하루아침에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거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무력감과 불편함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절망에 빠져버리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의 용기와 사랑이다. 주변사람들의 용기와 사랑에 힘입어 다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사회의 폭력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한다. 그레고르 잠자는 충실한 가장으로 살며 가족을 부양하지만, 벌레로 변한 뒤에는 가족조차 그를 거부하고 혐오한다. 이는 그가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상실하자 곧바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레고르의 변신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 역할을 잃었을 때 어떤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도구적으로만 바라보는 폭력성에 대한 카프카의 비판으로 읽힌다. 사회의 폭력에 대한 은유이다. 그레고르의 돌연한 변신은 단순한 현실 회피가 아니라, 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역할과 노동의 압박, 그리고 그에 따른 소외							

의 극단적 은유라고 볼 수 있다.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며 일만 한다. 그러나 벌레로 변한 순간, 쓸모를 잃자마자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는다. 이는 사회가 인간을 '기능'으로만 평가하고, 노동력을 상실한 존재는 쉽게 배제한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카프카 특유의 부조리한 설정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지를 드러내는 장치다. 그레고르의 변신은 바로 그 잔혹한 현실이 개인의 자아와 신체를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2. 그레고르의 가족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그레고르의 가족은 가해자이다. 그 이유는 벌레로 변한것이 그레고르의 잘못이 아닌데 변한 그레고르 자체를 부정하고 혐오하여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박탈시켰다. 그레고르가 가족을 위해 헌신을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건데 그레고르가 무력해지자마자 배척하고 그레고르가 없어져야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사랑했던 그레고르는 가족들에게 고립당하고 절망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가족은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이다. 그레고르의 가족은 처음엔 그가 벌레로 변한 충격에 당황하고, 그를 돌보려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그레고르를 부담스러운 존재, 방해물로 인식하게 되고, 점점 그를 방치하고 혐오하게 된다.

특히 여동생은 처음엔 돌보는 역할을 자처하지만, 나중엔 “그레고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물론 그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의 피해자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사랑했던 가족을 타자화하고, 배제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조함으로써 가해자가 된다. 이 작품은 가족이라는 관계조차 사회적 조건과 유용성에 따라 냉정하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가해자이다. 표면적으로 가족은 그레고르의 부양에 의존해 살아왔고, 그가 변신한 후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피해자'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가족은 그레고르의 희생으로 살아왔고, 그가 쓸모없어지자 곧바로 혐오하고 배척한다. 특히 여동생은 처음에는 돌보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이건 그레고르가 아니야!"라고 말하며 완전히 버린다. 이는 그들의 '조건적 사랑'과 기능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가족은 가장 가까운 폭력의 주체가 된다.

3. 그레고르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는가? 벌레가 된 후에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레고르의 정체성은 인간에 더 가깝다. 그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내면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감정이나 생각,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이 남아있지만 외면적으로는 벌레의 모습을 하고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을 것 같다. 그리고 아무리 내면에 인간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사회 활동을 제도로 하지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은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 정체성은 ‘쓸모’가 아닌 ‘관계’ 속에 있었지만, 타인의 시선에 의해 소멸되었다. 그레고르는 벌레가 된 후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다. 출근에 대한 걱정, 가족을 향한 미안함, 음악을 듣고 감동하는 모습 등은 그가 외형이 변했어도 여전히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와 가족은 그의 ‘쓸모’만을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은 점차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진다. 정체성은 자기 내부의 감각이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인데, 그레고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고립된다. 말도 통하지 않고, 방에 갇히고, 존재 자체가 지워지면서 그의 정체성도 무너진다. 결국 그의 정체성은 ‘벌레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벌레로 취급당한 이후의 관계 상실 속에서 소멸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역할에 있었다.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뒤에도 처음엔 회사를 걱정하고,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데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는 그의 정체성이 ‘가족을 위한 노동자’라는 사회적 역할에 깊이 묶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스스로를 혐오하고, 점차 말도 못하게 되고, 방 안에만 갇히는 과정은 정체성의 해체 과정이며, 결국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스스로 존재 의미를 잃고 죽음에 이른다. 그의 정체성은 본질적인 자아가 아니라 외부의 인정과 역할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	--

2025 년 5 월 30 일

참가자대표 : 윤*희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하면 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 년 5월 8일(목요일) / 장 소 : 비대면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정*원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5주차: <에이치 마트에서 울다> 읽고 줄거리 및 느낀점 나누기 책 제목: 에이치 마트에서 울다 작가: 미셸 자우너 줄거리 : 이 책은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이민 2세이며, 이 책은 그녀의 성장 과정을 담은 에세이이다. 미셸은 문화적 정체성 혼란, 어머니와의 갈등 등과 같은 문제를 겪으며 자라오지만, 어머니의 암 판정 진단으로 간병을 하게 되며 관계 회복에 노력한다. 간호를 하며 미셸은 둘 사이에 있는 한식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미셸은 한식 관련 재료를 마주칠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느낀점 음식은 사람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의 주인공도 한국인인 엄마의 영향으로 한국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인다. 또, 다문화 가정에서의 정체성 혼란을 잘 담아낸 책이다. 우리 사회도 앞으로는 다문화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다문화 가정과 사회를 간접적으로 알게되는 책이라 생각한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항상 혼란을 가지고 살 것 같다. 우리나라는 한민족국가로 너무 오래 살아왔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도 크고 모름으로 이어지는 혐오도 크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같은 학교 친구들, 모르는 이들의 혐오를 받고 살아간다. 요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서 인식 개선이 되는 중이라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나조차도 이 책을 읽으며 다문화							

	가정의 현실과 어려움 그 안에서 느끼는 자식의 혼란스러움을 알 수 있었다. 주인공이 슬픔을 느낄 때 대부분 한국 음식이 나오며 어머니와의 기억으로 치유한다고 보여졌다. 어머니를 잃은 후에도 한식을 먹으며 한국인으로써 정체감을 찾는다면 외적인 생김새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국인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자신이 한국계의 미국인이어서 어디에 속하지 못하며 정체성을 잃어, 이질감을 느끼던 부분이었다. 고독을 느끼는 가운데 잠시나마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H마트에서 음식의 재료들을 통해 의로를 얻을 수 있었다. 음식은 위로의 원천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떠오르게하는 슬픔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자신의 정체성때문에, 어머니와의 이별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홀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 현재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읽으면 큰 위로가 될것같았다. 기억에 남는 건 애도 방식이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이를 보내면 그 사람과의 추억에 잠겨 슬퍼 울거나 아니면 완전히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요리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의 방법으로 슬픔에서 벗어나 이겨내려고 했다. 꼭 이민자가 아니어도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견디며 이겨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추억을 기억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지 되돌아 보게 되었다. 저자의 방법은 '어머니의 음식'이었다. 어머니와 갈등하고 반항했지만, 결국 그녀의 사랑방식이 음식과 손길에 담겨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특히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서로를 이해 못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또, 책이 단순 애도에 그치지 않고 저자의 성장까지 보여 준 점이 좋았다.
--	---

2025 년 5 월 30 일

참가자대표 : 윤*희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하면 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 년 5월 15일(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씨스퀘어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정*원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6주차: <에이치 마트에서 울다> 논제 선정 및 토론 진행하기 1. 슬픔의 표현 방식은 문화적 코드에 달라지는가? 아니다. 슬픔은 인간 보편의 감정이며,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그 본질은 같다. 『H마트에서 울다』는 저자가 한국인 어머니를 잃은 뒤, 그 슬픔을 음식과 기억을 통해 표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한식이나 H마트 같은 문화적 요소가 중요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감정’을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문화마다 장례 의식이나 애도의 형식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슬픔의 감정 자체는 어느 문화권에서든 깊은 상실감, 회한, 그리움으로 나타난다. 저자가 H마트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다. 문화는 감정의 외피일 뿐, 그 안에 있는 슬픔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감정의 언어이다. 또한, 『H마트에서 울다』는 저자가 이중문화 속에서 살아오며 양쪽 모두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코드보다 인간 자체의 정서적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슬픔을 말 대신 음식에 담거나, 혼자 울거나, 추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은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나 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 책은 문화의 차이를 강조한다기보다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표현하고, 극복해가는 방식은 매우 닮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슬픔의 표현 방식은 문화적 코드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자우너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요리나 장을 보는 것처럼 행동으로 표현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공동체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공동체나 타인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을 생각하며 따라 만드는 행동을 통해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리워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미국의 영향도 받았는데, h마트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글씨기와 같이 내면을 탐구하기도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조화롭게 섞여 자신만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생겨난 것 같다.

슬픔의 표현 방식은 문화적 코드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슬픔 표현 방식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을 보면 여성 화자는 항상 슬픔을 감추고 돌려서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미덕이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양 문화에서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욱 환영받는다.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매우 쉽게 다른 나라의 문화, 생각 등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자국이 어디냐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는 확신하지 못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2. 음식은 기억과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 음식은 말보다 더 깊이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음식이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기억과 정체성, 사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에게 어머니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음식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갈비를 손질하고, 미역국을 끓이는 일련의 행위 속에서, 저자는 엄마의 사랑을 느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한식 요리를 배우며 과거를 되짚고, 그리움과 죄책감을 조금씩 소화한다. 이처럼 음식은 사라진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자,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감정의 언어가 된다. 사랑이 꼭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책은 반복해서 보여준다.

음식은 기억과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 자우너에게 음식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했던 옛 기억을 되살리고 사랑을 추억하게 만드는 특별한 매개체였다.

특히 자우너에게 한국 음식은 어머니가 남긴 정서적 유산으로, 어머니의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고 먹었던 기억은 그 자체로 사랑의 언어였고, 음식을 통해 작가는 어머니의 정성과 애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나 역시 대학교에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음식은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기에 많이 공감했다. 평소에 라면이나 조리식품을 주로 먹는데 먹다가 문득 엄마가 해주던 집밥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그럴 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조리식품을 데워 먹으며 집의 온기를 떠올린다.

또 본가에서 학교로 돌아오는 날이면 엄마는 늘 양손 가득 음식을 챙겨준다. 단순한 음식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과 배

려가 담겨 있다.

음식은 기억과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해둔 음식을 먹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보관만 하는 것을 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 그러한 것을 보며 음식은 누군가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나 한식은 손맛이라는 말도 있듯 누가 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다른 음식보다 더 사랑과 기억의 언어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인다.

3. 부모와의 갈등은 성숙 이후에만 재해석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그렇다. 성숙함은 갈등의 의미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다. 미셸 조너는 사춘기 시절 어머니와 깊은 갈등을 겪는다. 외모나 진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긴장감은 커졌고, 그 갈등은 극복되지 못한 채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의 말과 행동을 다시 곱씹게 된다.

그녀가 경험한 상실, 그리고 타국에서의 정체성 혼란은 오히려 그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어머니가 지녔던 불안, 이민자로서의 고단함, 딸을 향한 방식 없는 사랑을 이해하게 만든다. 이는 성숙이라는 개념이 단지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고통, 자기반성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가능한 감정적 재구성이라는 걸 보여준다.

자우너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옛날의 갈등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갈등을 다시 해석하는 일이 꼭 죽음 이후에만 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살아 있는 동안에도, 반드시 성숙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심 어린 표현과 솔직하고 많은 대화만 있다면, 오해는 풀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쌓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도 느껴지게 될 것이다.

부모와의 갈등은 성숙 이후에만 재해석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물론 성숙 이후라면 더 수월할 순 있지만 아니라고 해서 못하진 않을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믿고 지지해준다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숙 이후에만 재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5 년 5 월 30 일

참가자대표 : 윤*희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하면 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 년 5월 22일(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정*원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7주차: <나의 아름답고 추한 몸에게> 읽고 즐거리와 느낀 점 나누기 책 제목: 나의 아름답고 추한 몸에게 작가: 은유 즐거리: 이 책은 작가가 여자로 태어나 살아오며 있었던 몸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성교육, 여자라는 몸을 가졌기에 발생하는 통제, 성폭력, 출산과 월경, 간병자라는 행위와 돌봄과 노동, 글쓰기라는 육체적 행위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담은 글이다. 느낀점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아이돌을 우상화하며 마른 몸을 예쁘다고 생각하고 추구한다. 청소년들 중 기이할 정도로 마른 몸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 여러 방송과 기사로 다루어졌다. 프로아나가 인터넷 문화가 되며 구할 수 없는 약을 구하고 필요없는 약을 먹으며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한다. 성인도 아닌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거식증에 걸리고 심하면 사망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경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다루고 있다. 섭식 장애같은 경우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생기는 이유도 사회적 시선과 압박같다. 여성에게 보다 더 외적 요소의 중요도가 높다고 말하는 것부터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아름다우라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다. 또, 무리한 다이어트와 식이 제한으로 병에 걸리고 일상을 고통 속에서 보내며 몸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몸은 한 사람을 건강히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 생각했다. 아름다움 보다 신체 모든 것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외모에 대해 신경쓰게 되고 그러한 신경은 스트레스로 이어져, 나의 몸에 대한 자존감은 떨어지게 되며 나에게 기대되는 기준치는 점점 높아진다. 이책에서는 자신의 몸에 대한 고민과 사회의 시선, 그리고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다. 평소에 나는 몸(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내 몸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마스크와 모자 없이는 밖에 나가지 못한다. 남들의 시선과 주변 반응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의식하게 되고, 피해망상까지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에게 위로와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몸은 단순히 외형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피부색, 성별, 가난, 장애인 등 소외된 몸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깨달았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적나라하기에 불편하고, 불편했기에 위로가 되었다. 단순히 '러브유어셀프'를 외치는 것이 아닌 '바디포지티브'를 외쳤기에 좋았다.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풀어낸다. 책을 읽으며, 내가 혐오했던 나의 몸이 정말 내 시선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사회가 정한 아름다움이란 틀에 갇혀 나를 평가하고 통제한 것만 같았다. 나를 사랑하자고 외치지만 말고, 나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 보고 인정해야겠다. 그것이 진정하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	--

2025 년 5월 30일

참가자대표 : 윤*희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하면 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 년 5월 29일(목요일) / 장 소 : 비대면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정*원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이*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8주차: <나의 아름답고 추한 몸에게> 논제 선정 및 토론 진행							
	1. 몸은 개인의 것이기만 한가?							
	아니다. 몸은 개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대상이다. 『나의 아름답고 추한 몸에게』는 개인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 미디어의 이미지에 의해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조종되는지를 보여준다.							
	작가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추하다고 느끼는’ 감정조차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한 결과라고 고백한다. 여성의 몸은 특히 더 강하게 규범화된 시선에 노출되며, ‘예쁘다’, ‘말랐다’, ‘피부가 깨끗하다’ 같은 평가가 개인의 몸을 지배한다.							
	따라서 몸은 결코 완전히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회적 시선, 젠더 이데올로기, 문화적 기준이 몸을 형성하고 규제한다. 개인은 자신의 몸을 살아가지만, 그 몸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와 관계를 맺고, 판단받으며, 통제당한다. 이는 곧 몸이 사회적 산물임을 보여준다.							
	내 몸은 개인의 것이지만 사회적 규칙들이 우리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인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마약과 같은 약물을 해선 안된다, 공공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으면 안된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면 안된다 등 우리의 몸이지만 사회적으로 엄혀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다.							
	몸은 개인의 것이기 어렵다. 각 국가별로 미의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그 미의 기준은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기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사회에 의한 학습의 결과일지 진정 ‘나’가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건강한 몸도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너무 마른 사람들을 보고 일부는 환자같다고 표현하는 것, 뚱뚱한 사람을 보고 게으를 것이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한 개인에게 사회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크든 작든 항상 사회적 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사회적 학습을 통해 미의 기준을 세울 것이기에 몸은 개인만의 것이기 어렵다.							

2. 몸에 대한 감정은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관계, 성찰이 필요하다. 김소민은 오랜 시간 자기 몸에 대한 혐오와 분노, 수치심을 품고 살아왔다. 하지만 글을 쓰고,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직면하면서 서서히 몸을 미워하지 않는 법,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법을 배워간다.

이 책은 단순히 ‘자기 몸을 사랑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몸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것은 싸움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즉, 몸에 대한 감정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인식, 경험의 재구성, 사회적 언어와의 거리두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바꿀 수 있다. 사회가 정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보다보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물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작은 칭찬도 인정하며 받아드리는 모습을 길러야하고 주변에서도 용기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나 역시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서 외모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친구가 진심 어린 말을 다해 칭찬을 해주었고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과 함께 내 자존감도 높여줬다.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다. 예전과 똑같은 얼굴이지만, 칭찬을 받아드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다보면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소중해보인다. 외적인 변화가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바꿀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시선이 중요해지고 또래 집단이 중요해진다. 또, 시험 점수 등으로 평가 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은 크면서 자아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며 자연스레 회복되는 이들이 많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어서 무릎 뒤에 착색된 흉터가 있는데 교복을 입을 때 더운 여름이어도 항상 스타킹을 신고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흉터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커가면서 나를 인정하게 되었다. 흉터 치료를 받을 정도의 흉도 아니며 굳이 숨겨야 할 흉터가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하기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며 내 몸을 존중하게 되었다.

3. 질병과 통증은 개인의 서사인가, 사회적 언어인가?

둘 다이지만, 그 의미를 공유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언어’의 역할이 더 크다. 『나의 아름답고 추한 몸에게』는 질병과 통증을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작가는 자신의 생리, 여성 질환, 우울증 등 다양한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침묵되거나 축소되어왔는지를 고발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통증은 병원에서 “예민하다”, “원래 그런 것이다”라는 식으

	로 무시되기 일쑤다. 이는 질병과 통증이 의료 시스템이나 젠더 권력 안에서 어떻게 ‘말해지고’, 때로는 말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개인이 겪는 통증은 그 자체로 서사이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다뤄지는지는 결국 언어, 문화, 제도에 의해 규정된다. 질병은 개인적인 체험인 동시에, 말할 수 있느냐, 들어줄 수 있느냐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질병과 통증은 개인의 서사이다. 내 몸의 아픔은 오로지 내 자신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픔과 통증이 똑같다고 하여도 내 자신이 느끼는 통증의 강도는 다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힘들어한다. 이처럼 같은 통증일지라도 개인의 삶이나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질병과 통증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선 안된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의 일상이 바뀌며 단순한 아픔이 아닌, 나의 삶이 바뀌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질병과 통증은 개인의 서사이다. 같은 병에 걸려도 한 사람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무수히 다르기에 개개인들의 서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언어로 질병과 통증을 다룬다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기에 사회적 언어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질병과 통증을 감추는 게 미덕이지만 다른 나라는 다르다. 문화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의 서사로 봐야 한다.
--	---

2025 년 5 월 30 일

참가자대표 : 윤*희